

# 전기요금, 선택요금제 도입

## 한전, 전력난 대비 7-8월 도입 ... 절전포인트 제도도

한국전력(대표 조환익)은 2013년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됨에 따라 7-8월에 CPP(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를 시행한다고 6월13일 발표했다.

CPP 요금제는 10일 동안 지정된 피크일의 최대부하 시간대인 오전 11-12시와 오후 1-5시에는 3.4배의 요금을 부과하고, 지정일의 다른 시간대 또는 비지정일의 모든 시간대에는 요금을 0.8배로 낮추어주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사무실·공장·상가는 계약전력 5000kW 미만으로 7만3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PP 요금제는 겨울에는 계약전력 3000kW 미만에만 실시해 대상고객이 5만2000호로 일반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질적인 피크 감축효과를 위해 기준부하 대비 일반용은 5%, 산업용은 10% 이상 감축해야만 절감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전력은 또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8-9월분 전기요금(7-8월 사용분)을 20-30% 절감하면 전기요금의 5%를 적립해주고, 30% 이상 절감하면 10%를 제공하는 절전포인트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절전포인트는 연말까지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용 절전포인트제는 6월24일부터 1개월 동안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CPP 요금제는 6월 말까지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3>